

〈네버렛미고〉를 통해본 복제 인간 윤리

Ethics for Cloned Human Beings: 〈Never Let Me Go〉

김미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 칼리지

Mihye Kim(limelight99@naver.com)

요약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복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유전자를 복제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네버렛미고>의 등장인물들은 100세 수명계획에 의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복제 인간들이다. 이들은 해일삼이라는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은밀하게 사육되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불치병에 걸린 진짜 인간 환자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인공 캐시, 토미, 그리고 루스는 사춘기 시절 이곳에서 육체와 의식의 성장을 경험하며 자신들이 복제 인간이라는 정체성의 비밀도 알게 된다. 성인이 되어 이들은 두 번째 거주지 코티지로 이동하여 장기기증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두 번째 단계 또한 좀 더 진짜 성인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장기를 만들어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인간들이 꾸민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지만, 이들은 그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숙명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이들의 무저항은 삶에 대한 포기 선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의 연장이라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자기희생적 생명 연장이다. 영화는 복제된 인간들의 우애와 희생적 태도를 강조해서 보여줌으로써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라는 상이한 견해에 대해 철학적 사유가 뒷받침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복제 인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중심어 : | 복제 인간 | 가즈오 이시구로 | 네버렛미고 | 장기 기증 | 생명공학 |

Abstract

The evolution of biotechnology is no longer strange to the hypothetical scenario of cloning human genes to make cloned human beings. The characters of <Never Let Me Go> are cloned humans made in the laboratory by the 100-year-old life planning. They are cohabited in a school called Hailsham, where they are secretly reared.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healthy organs to real human patients with incurable diseases. The main characters Cathy, Tommy, and Ruth experience the growth of body and consciousness here during adolescence, and they also know the secret of identity as a clone. As adults, they move to a second residence, Cottage and are ready to begin organ donation. The second stage is also part of a program to provide more genuine-like organs to real patients. Even though they know all the plans that humans have built, they do not resist them and fatefully accept their situation. However, their non-responsiveness is not a declaration of renunciation of life, but a self-sacrificing life extension for another future that is the extension of life through their organ donation. The film emphasizes the fraternity and sacrificial attitudes of the cloned human beings and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discussions on cloned human beings from a bio-ethical point of view supported by philosophical reasons.

■ keyword : | Clone | Kazuo Ishiguro | Never Let Me Go | Organ Donation | Biotechnology |

I. 들어가는 말

인류는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로움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지만, 불멸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은 난치병 치료를 통한 생명 연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치료할 수 없는 장기를 떼어낸 후 건강한 타인의 장기로 이식하거나 환자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 이것을 이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의학 분야에서의 이러한 발전에 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결합시켜 장기적출의 목적으로 키워지는 복제 인간을 다룬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발표하고 있다. 복제 인간 혹은 인간 복제를 소재로 한 1931년 작 <프랑켄슈타인> 이후 복제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미래 세계라는 가상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특수 효과를 적용하여 관객들에게 시각적 쾌감을 제공하는 SF영화와, 이와는 반대로 철저하게 특수 효과를 배제한 화면 구성을 통해서 관객의 정서적 판단에 호소하는 영화들이 있다.

복제 기술에 관한 대표적 담론으로는 난치병의 치료를 통한 수명연장과 그에 따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제 기술을 활용한 치료에 찬성하는 생명 공학의 관점과 이를 악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반인간적 상황을 가정하여 반대하는 윤리적, 종교적 시각을 들 수 있다. 시카고 대학의 레온 카스(Leon Kass) 교수는 인간 복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보기에 유전공학은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가장 큰 '비극', 말하자면 '성공의 비극'인 것이다[1]. 그는 이 새로운 형식의 생식이 인간 사회와 어린이의 정체성에 미칠 해악을 강조하면서 가족이라는 사회공동체적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복제 인간이 어떤 식의 사회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다[2].

1997년 '국제 인도주의 아카데미'의 연구자들과 교수들은 고등 포유동물과 인간의 복제에 관한 연구를 옹호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이 발휘할 수 있는 한에서 인간의 능력은 다른 고등 동물의 능력과 본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류의 풍부한 지식도 두뇌의 전기 화

학적 과정의 산물이지 어떠한 장치로도 발견할 수 없는 직접적인 영혼의 산물로 보이지 않는다. 복제로 인한 잠재적인 이득이 낮은 신학적 편견으로 복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불러올 비극보다 훨씬 크다[1].

유물론자와 유심론자들의 오랜 대립이 다시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다. <네버렛미고>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동명 소설 *Never Let Me Go* (2005년)를 알렉스 가랜드(Alex Garland) 감독이 2010년에 영화로 제작한 <네버렛미고>는 복제 인간들을 교육하는 시설인 헤일섬(Hailsham)을 배경으로 하여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사육되다가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지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폐기처분되는 복제인간 생명윤리에 대해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켜 과학이나 법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을 통해 복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사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후 사육되는 헤일섬 아이들의 모순적 존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실제로는 사육을 하고 있는 헤일섬의 교사들의 역할을 분석한다. 4장은 영화에서 어떤 표정도 목소리도 내지 않는 철저한 비존재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화 속 모든 기획의 중심이 되는 장기 수혜자에 대해 살펴본다.

본 영화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헤일섬에서 사춘기를 보내는 복제 인간들의 성장과정을 '빌딩스토만'(교양소설)으로 보고 그 시기의 교육이 등장인물들의 인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매튜 에토프(Matthew Eatough)의 논문[3]과 종교와 생명공학의 입장에서 목적의식이 지닌 폭력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티파니 타오(Tiffany Tsao)의 논문[4]이 있다. 국내 연구로는 복제 인간을 일종의 철학적 은유로 보고 현대사회가 지닌 인간성의 위기에 대해 철학적 해석을 담은 작품으로 분석을 시도한 김대중의 논문이 대표적이다[5].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영화가 아니라 동명의 소설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 물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같지만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독자가 느끼는

점과 시각 매체인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해지는 자극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제인간을 어떤 상징적 사회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적으로 직시하여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영화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복제인간 윤리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작품 분석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은 이론은 페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의 저서이다[6][7].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선별하고 사육할 수 있게 만든 생명공학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도래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 복제가 가능해진 새로운 미래사회를 낙관적으로 볼 것인가 재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도미니크 르쿠르의 저서 *인간복제는쟁: 인간 복제 이후의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1]를 통해 인간 복제에 대한 양쪽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간 복제의 기본 개념과 그것의 사회적이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여러 주장들을 참고하였다.

II.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해일삼의 아이들

복제란 과학에서도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모호한 용어이다. 그것은 분자 복제, 세포질 복제, 배아 복제 또는 체세포 핵 이식을 의미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 중요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인간 복제(human cloning)란 생명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인간 개체 복제(human individual cloning)와 인간 배아 복제(human embryonic cloning)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드는 방법이며, 후자는 수정란이 완전히 분화되기 전의 배아 줄기 세포(embryonic stem cell)를 얻어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장기와 세포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일컫는다[6]. 〈네버렛미고〉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후자의 목적을 위해 개체 복

제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복제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에게는 서로를 구별하는 이름은 없지만, 가족의 혈통을 말해주는 성은 없다. 그래서 캐시는 자신의 이름을 ‘캐시 H’라고 소개한다. 이들이 누구의 유전자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는지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화의 전반부 해일삼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십대 초반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이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속한 환경속에서만 상호작용하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영향을 받아 후천적으로 이러한 본성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격리된 공간에서 같은 또래끼리의 집단생활이라는 존재 조건은 이들에게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개념을 갖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성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적 사건들을 통해 보면 이들도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과 같은 육체와 정신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춘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이들은 소위 ‘영혼 없는 육체’는 아닌 것이다. 억압과 은폐로 숨길 수 있는 영역과 결코 억압될 수 없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복제 인간들의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캐시-토미-루스라는 세 인물의 관계가 성장 축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해일삼에서의 사춘기, 코티지에서 보낸 성 인기, 그리고 장기 기증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우정과 애정의 관계를 이어간다.

캐시-토미-루스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계기는 해일삼에서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판매회에서 생긴 사건 때문이다. 해일삼의 아이들에게 세상은 해일삼과 그 바깥으로 양분되어 있다. 판매회는 해일삼 바깥의 인간 세상에서 버린 쓰레기와 같은 잠동사니들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게 하는 행사이다. 물론 이때 진짜 화폐를 사용하지는 않고 아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코인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것들 속에서 토미는 “Never Let Me Go”라는 곡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사서 캐시에게 선물한다. 테이프에서는 여자 가수가 “달링, 안아줘요, 안아줘요,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절 가게하지 마세요. 달링, 키스해 주세요” 라고 절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캐시는 침대에 걸터앉아 노랫말에 심취해 있다. 그 모습을 루스가 질투어린 눈길로 먼발치에서 바라본다. 사춘기에 이성관계에 눈을 뜨게 된 이들이 토미를 사이에 두고 캐시와 루스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18세가 되는 해인 1985년에 캐시는 토미, 루스와 함께 복제 인간들이 장기 기증을 시작하기 전에 임시로 공동 생활하는 장소인 코티지(Cottage)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장기 이식을 위해 소환될 때까지 해일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복제 인간들과 ‘아주 잠깐 성인기’를 같이 보내게 된다. 해일삼의 교육을 통해 장기 기증이라는 목적 지향적 삶[4]을 살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들에게 바깥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복제 인간들은 그것을 향유하지 못한다. 존재의 목적이 삶의 방식을 구속하고 있다.

영국 어느 시골 변두리 가장자리쯤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코티지에는 외부와 단절시키는 높은 담장과 철저한 감시의 시선도 없지만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도를 하지 않는 ‘열려 있지만 닫힌 것과 같은 공간’이다. 코티지의 이중성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복제인간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들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자기보존 욕동과 종족 보존 욕동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때 이른 종말에 대한 순종적 체념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토미와 커플이 된 루스는 이곳에서 두 가지 경험을 한다. 하나는 이성 관계로써 토미와의 섹스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서 남아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존재자는 이성과의 육체관계에서 어떤 진장한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장면을 지나치면서 보게 되는 캐시의 시선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종족 보존은 생명연장의 다른 표현이기에 그 가능성을 차단당한 이성관계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루스의 두 번째 경험은 자신의 ‘원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원본 찾기가 실험실에서 세포와 세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복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삶에 대한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용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이들의 의식에 깊이 심어 놓고 있다[4]. 그래서 루스가 걸으려는 자신과 사무직 여성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원본’일수도 있는 여성과의 정서적 동일시를 통해 ‘유용한 존재’로 남고 싶다는 목적 지향적 존재의 이중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3].

영화의 후반부에 간병인이 된 캐시와 장기 기증을 시작한 루스와 토미가 다시 만난다. 경험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반응과 그것에 대한 접근 방식은 상이하지만 토미와 캐시, 두 사람 모두 결코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루스는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 두 번째 기증을 마친 후 회복 센터에서 캐시와 재회한 루스는 과거 자신이 의도적으로 토미와 캐시의 사이에 끼어들어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다른 회복 센터에 있는 토미와 같이 만날 것을 제안한다. 그녀는 에밀리 교장의 집주소를 알려주면서 두 사람에게 연장 신청을 하라고 권한다. 자신의 종말 앞에서 루스는 자신의 주인으로써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음’을 더 이상 할 수 없다[9]는 사실을 인식하고 타자인 캐시와 토미를 마주한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를 토미와 캐시의 현재 속에서 실현시켜 자신의 죽음을 영원한 사라짐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고통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더욱 팽팽하게 지탱하고 죽음에 직면해서 설 수 있는 존재만이 타자와의 관계가 가능한 영역에 자신을 세울 수 있다[9].

코티지를 떠난 후 9년간 간병인 생활을 하고 있는 캐시는 자신의 육체와 삶에 대해서 토미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극도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육체는 대체 가능한 물체이며 그래서 신체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체로 대체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져야하는 애정을 캐시는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 신체에 쏟고 있는 것이

다. 이 경우 다른 신체는 그녀가 보살피는 기증자들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보고 싶다’는 욕망[3]의 차원에서 보면 기증자들이 제공하는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들인 것이다. 지금은 간병인이지만 조만간 자신도 기증자가 될 상황에서 그녀에게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몸에 애정을 쏟는 대신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캐시의 몸에 대한 무관심은 미래를 살고 싶다는 절절한 바람을 그 속에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해일삼에서 같이 성장한 이 세 인물의 여정을 통해서 생식이나 수명, 사회제도나 문화의 습득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복제인간들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교육하지 않는 사육자들: 해일삼의 교사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휴머니즘의 가면을 쓴 인간 길들이기 기획과 포스트-프로메테우스적 발상을 가능하게 한 첨단 생명공학의 발전이 공모하여 해일삼이라는 기이한 장소가 만들어졌다. 학교는 지난 시대의 지식을 현재의 학생들에게 전수하여 미래를 열어갈 인재로 기르는 교육의 장이다. 지식의 전수라는 휴머니즘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학교교육의 전통이 영화 속에서는 복제인간들의 의식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이들을 인간들의 사용 목적에 맞게 키우는 반인도적 장소로 바뀌어 있다. 학교라는 공간이 현대의 야만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생명공학이 발전한 오늘날 기존의 인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러 휴머니즘의 지평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니체의 전통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을 재조명하고 있다. 니체에게 전통적 휴머니즘의 길들이기 작업은 나약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성직자라는 사육자의 작업으로 폭로된다[7].

영화에서는 해일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곳의 운영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십 명의 복제 인간을 동시에 만

들어내고 이들을 목적에 맞게 키우는 것은 결코 부유한 몇몇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기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조직이 이들을 후원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네버렛미고〉에서 해일삼의 교사들은 진정한 교육자가 아니라 그 조직의 대행자이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기획에 동조하지 않는 교사 루시를 해고한다.

침울한 표정의 루시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예전부터 들었지만 듣지 못했다.”라고 운을 떼면서 아이들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다.

너희들은 들었지만 너희 중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해.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아니, 너희는 몰라. 너희 중 누구도 알지 못해. 그 아이들은 자라서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미국에도 갈 수 있지. . . . 그들은 무엇 이든지 할 수 있지. . . . 너희는 그 누구도 미국에 갈 수 없어. . . . 너희는 너희들을 위해 정해 놓은 그 삶을 사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단다. 너희들도 성인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야. 나이가 들어 늙기도 전에 심지어 중년이 되기도 전에, 너희들은 장기 기증을 시작할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 너희들은 만들어졌어.

루시 선생님을 해일삼 기획실현에 위협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해고한 것은 그 기획 자체가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부정확한 음모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고통스러운 형벌에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듯이 루시 선생님도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육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반윤리적 행위를 폭로한다.

그런데 관객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교사 루시의 폭로보다도 그 사실에 대해 이들 중 누구도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한 표정으로 마치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무심히 앉아 있다는 것이다. 자유를 박탈당한 ‘목적 지향적 삶’[3]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이들은 이미 해일삼 기획에 의해 철저히 세뇌당해 있으며 진실을 전달한 루시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 예민리 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전복(subversion)시키려는 흐름에 맞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또한 그러한 흐름이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항상 그렇지 않죠. 그 흐름은 항상 완고한 생각을 기반으로 하죠. 면밀히 조사되지 않은 가치들을 안고 있지요. 하지만 난 제압되지 않아요. 결코 제압되지 않아요. 해일삼도 마찬가지로 예요.

교장 에밀리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기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최상의 장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체조건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는 ‘영혼’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예술 교육을 통해 보다 더 인간의 것과 유사한 장기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실현을 위해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특별히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주기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몸에 난 사소한 상처까지도 조사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시 쓰기와 미술 교육을 실시한다.

영화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창의력의 발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다른 행위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창의력이 영혼 속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복제 인간들이 그린 그림이 창의적이라면 이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화의 후반부에 토미와 캐시가 은퇴한 교장의 집을 찾아가 해일삼 시절에 그들의 그림을 선별하여 갤러리에서 전시한 이유는 묻는 과정에서 밝혀진다. 교사들은 학생의 그림전시를 통해 그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복제 인간의 권리를 위한 기금을 얻기 위해 전시를 열었던 것이었다. 이들은 복제 인간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들도 인간의 영혼과 유사한 것을 가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장기수확이라는 목적을 더욱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미니크 르쿠르(Dominique Lecourt)의 표현을 빌면 ‘성공의 비극’이다[1].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들의 작품 전시회가 성공하여 기금마련에 기여했다면 더 많은 해일삼과 더 많은 복제 인간들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러

나 교사들의 그러한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캐시가 첫 장기 기증을 앞두고 예전에 해일삼이 있었던 곳이라 짐작되는 장소에 와 있다. 지금은 텅 비어 황량한 들판에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을 뿐이다.

IV.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들: 장기 이식의 수혜자들

소설과 달리 영화의 첫 장면은 시간의 축으로 보면 마지막 장면에 해당한다. 토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캐시 쪽을 바라보고 캐시는 유리창 바깥에 서서 말없이 그를 응시한다. 마지막 장기 기증을 마친 토미가 ‘임무 완수’의 지점에 이른 것이다. 영화에서 이 거대한 음모의 집행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듯이, 수많은 기증자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최소한 두 번 이상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장기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영화의 본질을 그림을 이용한 이야기라고 정의한다면, 영화는 회화적 서술과 언어적 서술이란 ‘두 가지’ 서술적 경향의 종합이다[10]. 등장인물의 언어 기호와 그림 기호가 영화에서 의미형성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데 이식의 수혜자들은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어떤 의미의 발생도 일으키지 않은 채 침묵하면서 스크린 이면에 존재한다.

영화의 후반부에 장기 기증을 마친 한 복제 인간을 회복실에서 캐시가 돌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기증을 마치고 병실에 있는 루스와 다음 기증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토미가 등장한다. 장기 적출 후 겪는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운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젊고 건강한 이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은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면 속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네버렛미고>에서는 두 가지 층위에서 ‘얼굴의 상실’이 일어난다. 복제 인간들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이 없고, 이들의 장기를 이식받은 자들은 얼굴이 없

지만 있는 ‘탈-얼굴’[11]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장기의 수혜자들을 인간의 독자성을 나타내며, 인간을 정의 하는데 사용되는 얼굴이 없는 존재로 표현한 이유는 굳이 그들에게 얼굴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감독은 복제 인간이나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복제 인간 윤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켜 영화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위해서는 다소 자극적인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장기 이식 후 고통 받는 복제 인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장기를 이식받아서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수혜자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 존재자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 다양한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V. 맺는 말

현대는 과학과 기술이 길잡이가 되어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흐름은 전 지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것의 목표, 근원, 영향, 부작용 등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이 안겨주는 기회와 위험에 대한 성찰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10]. 인간복제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공학이 인간 생성에 관여하는 생명 규범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1]. 많은 사람들은 체세포 핵 이식 복제 실험을 통해 태어날 아기에게 발생할 신체적 해악과 고유성 (uniqueness)의 상실이라는 심리적 해악에 대해 우려한다. 첨단 과학은 인간의 존재 상황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생존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화 〈네버렛미고〉에 등장하는 복제 인간들은 존재자인가 아니면 공학 기술이 만들어낸 ‘쓸모 있는’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가라는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았자 했다. 존재는 자기 자신으로 있음, 즉 자기 자신을 가짐이라는 사태는 우리가 인간으로 존

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삶의 근본사태이다[8]라는 하이데거의 규정을 들어보면 이들은 분명 존재자들이다. 헤일샴의 아이들은 인간의 수명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들도 분명히 육체와 정신의 성장과정을 거쳐 마침내는 그들의 존재 이유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지켜보는 영화의 관객은 그들을 존재자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복제 인간을 존재자로 규정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장기 이식수술을 받아야하는 보통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한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3]을 위해 복제인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30년 남짓 살다가 임무를 완수하면 폐기 처분되는 복제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오직 타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고 철저하게 교육받은 탓에 자신들의 신체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기증 완료 (completion)를 앞두고도 감정의 흔들림을 크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철저하게 왜곡되고 가학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성인이 된 캐시가 보이소버 (voiceover) 방식으로 “I feel a great sense of pride in what we do,”라고 하는 말 속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망도 담겨있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혜자를 자기 밖의 타자로 인식하는 대신 존재의 확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간병인이나 기증자 모두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이는 우리가 기계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도 닮게 된다. 그것 때문에 나는 많은 시간을 앞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며 지냈다.

생명공학이 발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복제 인간의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에밀리 교장의 표현처럼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다. 인본주의적 정신을 회복하여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하겠지만, 계몽된 인간들 사이에서 만연한 냉소주의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슬로터다이크는 지적한다[7]. 그러

면서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현실을 긍정하면서 모순에 저항한 그리스의 견유주의와의 새로운 만남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화 속의 미래 사회는 사이보그와의 공존과 같은 상상 과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상 속의 공간이라고 보다는 고전 영화 속 장면과 같이 평범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이질적이지 않은 친숙한 분위기 속에 복제 인간이라는 낯선 존재를 등장시켜 이들과의 공존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들이 우리 인간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감독의 의도이다. 이들도 보통의 인간들과 같은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과정의 단계에 따라 의식의 변화도 경험한다. 또한 영화에서는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20-30대에 종말 혹은 죽음과 대면해야 하는 복제 인간들이 같은 나이대의 인간들 보다 오히려 삶에 대해 더욱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초연하게 수용하는 모습은 이들이 인간의 유전자 복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산된 비생명적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네버렛미고>에서 감독은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효용 가치를 다한 후에는 폐기처분되는 복제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 처리방식에 대해 어떤 과장된 묘사나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도 관객의 이성 과 감정에 그러한 행위의 부당함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장기를 이식받아 생명을 연장하게 된 수혜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감독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복제를 합리적 차원에서 신뢰를 구축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장으로 보는 주장도 있지만, 이들을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인본주의적 인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이 영화는 강조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도미니크 르쿠르, 권순만 옮김, *인간복제논쟁*, 지식의 풍경, 2005.
- [2] 제임스 왓슨, 스티븐 제이 골드 외, 류지한, 박찬구, 조현아 옮김,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울력, 2002.
- [3] Matthew Eatough, "The Time that Remains: Organ Donation, Temporal Duration, and Bildung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Literature and Medicine*, Vol.29, No.1, pp.132-160, 2011.
- [4] Tiffany Tsao, "The Tyranny of Purpose: Religion and Biotechnology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Literature & Theology*, Vol.26, No.2, pp.214-232, 2012.
- [5] 김대중, "Dialectics of Utopia and Dystopia and Bio-politics in *Never Let Me Go*," *인문과학연구*, 제36권, pp.200-221, 2013.
- [6] 이진우, 이유택, 권의섭, 박미애, *인간 복제에 관한 철학적 성찰*, 문예 출판사, 2004.
- [7] 페터 슬로터다이크, 이진우, 박미애 역, *인간농장을 위한 규칙*, 한길사, 2004.
- [8] <http://philinst.snu.ac.kr/html/main/main.php>
- [9]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9.
- [10] 유리 떠나노프, 보리스 에이헨바움, 로만 야콥슨, 유리 로트만, 오종우 옮김, *영화의 형식과 기호*, 열린책들, 2001.
- [11] 자크 오몽, 김호영 옮김, *영화 속의 얼굴*, 마음산책, 2006.
- [12]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9.
- [13] 이흥경, "포스트-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프랑스판 포스트휴먼과 독일판 포스트휴먼," *독일어문학*, 제60집, pp.141-165, 2013.
- [14] 김석수, "휴머니즘과 냉소주의, 그리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슬로터다이크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46집, 제4권, pp.23-46, 2006.
- [15] Rachel Carroll, "Imitations of life: cloning, heterosexuality and the human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Journal of Gender Studies*, Vol.19, No.1, 2010(3).
- [16] <https://en.wikipedia.org/wiki/Bildungsroman>
- [17] <http://www.moviecultists.com/.../screenplays/never-let-me-go>

저 자 소 개

김 미 혜(Mihye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88년 2월 :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 칼리지 강의초빙 교수
- <관심분야> : 영화, 문화 콘텐츠